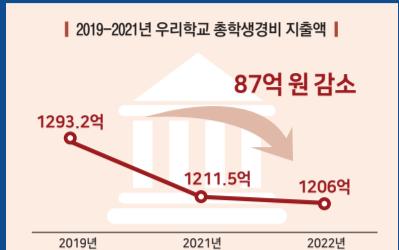


우리신문은 최근 3개년 공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운영과  
교육여건을 연관 지어 대학평가 부진 원인을 짚어봤다.



새로운 학사제도로서 공존 위해 개선될 필요 있어

# 대학주보



## 최정훈 동문 학식행사 개최

지난 달 30일 청운관 지하 2층에서 <선배가 쓴다! 쿠쿡 가보자 Go> 무료학식지원 행사가 진행됐다. 해당 행사는 경희후배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, 그룹사운드 박상희 기자 smtg7475@khu.ac.kr

## 논술 고사 응시율 56.5%

박희원 기자 rxxtjxy@khu.ac.kr  
김권수 기자 okb8888@khu.ac.kr

2023학년도 수시전형 논술 고사  
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  
행됐다.

입학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 
이번 논술우수자전형 지원자는 서  
울캠퍼스(서울캠) 23,398명, 국제캠  
페스(국제캠) 7,740명으로 최종 경  
쟁률은 서울캠, 국제캠 각각 92.4대  
1, 33.0대 1로 나타났다. 이중 논술  
고사 응시자는 서울캠 13,105명, 국  
제캠 8,990명으로, 최종 응시율은  
약 56.5%로 집계됐다. 지난해 응시  
율인 64.4%보다 하락한 수치다.

반면 결시율은 지난해(35.6%)보  
다 7.9%P 상승한 43.5%를 기록했  
다. 의예과, 한의예과, 치의예과, 약  
학과 등이 속한 의약학 계열의 결시  
율이 50.3%로 가장 높았다. 입학처  
논술우수자전형 담당자는 “문·과  
통합 선발을 처음 시행했던 작년과  
달리, 올해는 수능점수 예측 비율이  
높아지면서 응시율이 낮아졌다”고  
설명했다.

현재 우리학교 논술우수자전형은  
논술 70%, 교과 21%, 출결·봉사 9%  
의 반영 비율을 적용한다. 그러나  
2024학년도부터 교과와 출결, 봉사  
부문 없이 논술 100%로 비율이 변  
경된다. 이에 따라 논술 시험 이외  
부담 요소가 줄어들어 수시 경쟁률  
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한편, 2023학년도 수시전형 합격  
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. 네오르네  
상스전형(학생부종합)은 지난 23일  
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고,  
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면  
접 평가를 진행한다. 논술·네오르  
네상스·지역균형전형(학생부교과)  
의 최종합격자는 다음 달 15일에 입  
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이다.

\* 다음 호는 1월 초에 발행될 예정입니다.

## 학생 총투표, 서울 'SKETCH' 국제 '희로' 당선

강다은 기자 ekdms2002@khu.ac.kr

지난 30일 서울캠퍼스(서울캠)  
개표를 끝으로 양 캠퍼스 학생총선  
거가 마무리됐다. 서울캠 총학생회  
(총학)는 [SKETCH] 선거운동본  
부(선본) 이재백(관광학 2020) 정후  
보와 채희선(행정학 2020) 부후보  
가 당선됐다. 국제캠퍼스(국제캠)  
총학은 [희로] 선본 문정식(중국어  
학 2018) 정후보와 권예성(건축공  
학 2018) 부후보가 당선됐다.

서울캠 학생총선거는 유권자  
13,551명 중 7,360명이 투표에 참여  
하며 투표율 54.3%를 기록했다. 경  
선으로 치러진 총학 선거에서는  
[SKETCH] 선본이 47.6%(3,507표),  
[경지] 선본이 44.4%(3,273표),  
기권이 7.8%(580표)의 득표율로  
[SKETCH] 선본이 당선됐다. 총  
학 선거구 [SKETCH] 선본 이재  
대학 [에이블(ABLE)] 선본 ▲

백 당선자는 “13,551명의 많은 학우  
분들이 투표해 주셔서 감사하다”  
며 “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”  
고 말했다. 이어 채희선 당선자는  
“함께 그리다, 우리의 경희’라는  
모토에 맞게 학우분들이 원하는,  
바라는 경희대학교를 만들어 나갈  
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”며  
“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 
매서운 눈초리로 우리를 많이 감  
시해달라”고 덧붙였다.

서울캠은 입후보 등록이 없었  
던 ▲문과대학 ▲의과대학 2개  
선거구를 제외하고 학생총선거  
가 진행됐다. 당선된 선본은 ▲  
간호과학대학 [술] 선본 ▲경영  
대학 [LEAD] 선본 ▲생활과학  
대학 [청명] 선본 ▲음악대학 [희  
음: HEEUMM] 선본 ▲이과대  
학 [이퀄(EQUAL)] 선본 ▲정경  
대학 [에이블(ABLE)] 선본 ▲

치과대학 [한울] 선본 ▲한의과  
대학 [진] 선본 ▲호텔관광대학  
[for;est] 선본 ▲행복기숙사 자치  
위원장 [TO:GATHER] 선본이  
다. ▲세화원 자치위원회의 경우  
투표율 50% 미만으로 개표가 보류  
됐다. 선거가 없었던 ▲문과대학  
▲의과대학을 제외한 11개 선거구  
모두 단선으로 진행됐다.

국제캠 학생총선거는 유권자  
7,945명 중 4,440명이 투표에 참여  
하며 투표율 55.8%를 기록했다. 단  
선이었던 총학 선거에서는 [희로]  
선본이 찬성 76.3%(3,390표), 반대  
18.2%(806표), 기권 5.4%(242표)를  
얻으며 당선됐다. 총학 선거구 [희  
로] 선본 문정식 당선자는 “당선이  
라는 결과를 받아 매우 행복하고  
기쁜 마음”이라며 “(희로에 대한)  
기대가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  
교심으로 당연하게 이어질 수 있

게끔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 
이어 권예성 당선자는 “우리가 내  
세운 공약을 비롯해 가장 중요하  
게 생각하는 ‘국제캠퍼스의 브랜드  
가치’를 위해 희로가 어떻게 헤쳐  
나가고 노력하는지 지켜봐 주셨으  
면 좋겠다”며 소감을 전했다.

국제캠은 총학을 포함한 전체 11  
개 선거구에서 학생총선거가 진  
행됐다. 당선된 선본은 ▲국제대  
학 [KEY:KIC] 선본 ▲응용과학  
대학 [UP-FLY] 선본 ▲생명과학  
대학 [파란] 선본 ▲소프트웨어융  
합대학 [TAB] 선본 ▲전자정보대  
학 [WITH:U] 선본 ▲체육대학  
[CORE] 선본 ▲예술·디자인대학  
[예화] 선본 ▲공과대학 [원스텝]  
선본 ▲외국어대학 [클로버] 선본  
▲중앙동아리연합회 [중랑] 선본  
으로 경선인 외국어대학 선거구를  
제외하면 모두 단선으로 진행됐다.